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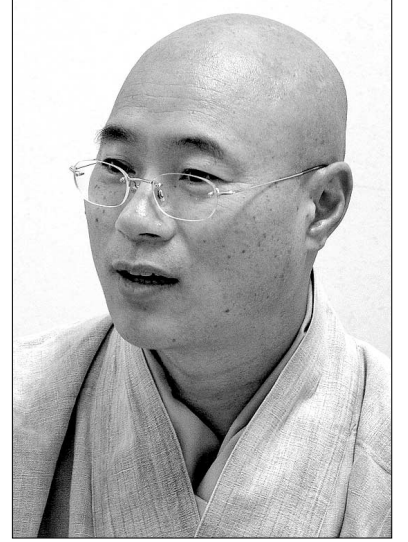
빛고를 불교아카데미

-부처님 10대 제자와 행복한 삶에 대한 이야기

제6강 : 세상을 향한 열린 대화! 자비-논의제일 가전연

강사 : 지운 스님 (동화사 강주)

공동주최 : 광주 동구불교협의회- 현대불교
일시 : 2005.11.9 / 장소 : 광주 KT정보센터



지금 이순간 당신은 깨어 있습니까

01 부처님이 들려주신 계승이나 법문의 뜻이 너무 심오해서 알 아듣지 못할 때 그 뜻을 잘 풀어 설명해 주셨던 분이 논의제일 가전연 존자입니다. 지금 티베트 불교의 강원에는 체다라는 교육방법이 있습니다. 손뼉을 치면서 논하는 것으로 '체'는 전쟁, '다'는 법으로 '법의 전쟁'을 뜻합니다. 손은 문수보살 지혜의 칼을 의미합니다. 서 있는 스님이 손뼉을 치면서 '말하라' 합니다.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앉은 사람은 대답을 합니다. 여기에서 앉은 사람은 불교이고, 서있는 사람은 외도의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육은 불교 최고의 대학이었던 나란다 대학 때부터 있어왔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논의제일 가전연 존자에게서 비롯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가전연 존자의 산스크리트 명은 마하카차야나(Mahakatyana)로 중인도 서쪽 지방에 위치한 아반티(Avanti)의 수도 우제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반티 국왕인 악생왕(惡生王)이 석가모니 부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7명의 사신을 보내 부처님을 초청합니다. 그 사신 중에 가전연이 끼어서 가게 됩니다. 가전연은 부처님을 친견하고 바로 출가를 합니다. 그 후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왕을 비롯해 대중들에게 법문을 해서 교화를 합니다.

가전연 존자에 관한 경전이 많이 있지만 오늘날은 중앙합경 제43권 온천림경(溫泉林天經) '일야현자(一夜賢者의 계(偈))'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 제자 가운데 사맛이라는 스님이 수행에 앞서 온천에서 목욕을 하고 나오는데 천인(天人)이 나타나서 '일야현자의 계'에 대해 물읍니다. 그 계승을 듣지 못한 사맛이 스님은 부처님에게 법을 청합니다. 부처님으로부터 계승을 들은 사맛이 스님은 내용이 너무 심오하여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가전연 존자를 찾아가 뜻을 설명해 달라고 합니다.

이렇듯 가전연 존자는 부처님 가르침의 뜻을 잘 풀어 논의제일이라 불렀습니다. 깨달음을 얻는데 있어서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법문을 많이 듣는 것, 둘째는 법, 진리를 사유하는 것, 셋째는 실제로 사유의 끝에 서서 내적 관찰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



11월 9일 열린 빛고를 불교아카데미 여섯번째 법회에는 1천여 불자들이 참석해 지운 스님의 강의에 귀를 기울였다.

다. '일야현자의 계' 첫 대목입니다.

부디 과거를 생각지 말고 또한 미래를 원하지 말라. 과거의 일은 이미 멀었고 미래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 내용은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과연 과거, 현재, 미래 속에서 살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현재적 삶은 살지 않고 과거나 미래 속에 사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현재의식으로 깨우는 것이 수행

혹시 살아가는 삶 속에서 현재 이 순간 깨어있는 적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생각을 객관적으로 볼 수 없거나 감정을 객관적으로 볼 수 없는 분야라면 한번도 깨어난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 계승은 바로 의식이 현재 이 순간으로 깨어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옛날 송광사에 열굴 잘 생기고 키 크고 풍채 좋은 스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봄날이 스님이 송광사 아래 신령리 마을을 지나오는데 나뭇캐논 처녀가 힐끔 스님을 쳐다봤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처녀 머릿속에 그 스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요즘말로 스님이란 원판은 지나갔는데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상(想)입니다. 이것은 과거 현재 미래 중 어디에 속합니까? 과거입니다.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과거입니다. 그래서 '생각 상'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 처녀가 집에 가서 밥을 먹어도 스님 얼굴, 누워서 천장을 보아도 스님 얼굴,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상사병이 아닙니다. 며칠 지나고 난 뒤에 '스님을 한번 만나야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서 스님을 찾아 나서려고 웃을 갈아입는 순간이 '생각 사(思)'입니다. 대문을 나서면서 머릿속으로 스님하고 팔장 끼고 결혼하고 아이들을 건사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과거 현재 미래 중 어디에 속합니까? 미래입니다.

이제 처녀는 상사병이 들었습니다. 과거는 '생각 상'이고 미래는 '생각 사'거든요. 그래서 상사병입니다. 처녀가 송광사에 올라와서 스님을 찾으려고 대중방 문고리를 잡고 살짝 열고 보니 스님이 발우공양을 하고 있습니다. 공양을 거의 다 드신 스님이 물을 부어서 고춧가루가 남아있는 발우를 손으로 씻기 시작했습니다. 처녀가 생각하기에 저 더러운 물을 버리겠지 했는데 스님이 씻은 물을 흘려 마시는 겁니다.

"아이고 더러워라." 마음속으로 '더러워라' 하는 순간 상사병이 깨져버렸습니다. 여기서 처녀는 과거나 미래를 계속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나 문뜰으로 스님을 바라본 순간은 현재였고 '더러워라'는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 현재의식이 깨어난 것입니다. 남녀간 이성이 아니라도 과거나 미래를 왔다 갔다 하고 있다면 상사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수행, 명상한다는 것은 과거나 미래로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을 현재의식으로 깨우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식으로 깨어났을 때 우리는 과거를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려도 현재의식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행입니다. 과거나 미래를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을 현재의식으로 깨우는 것이 수행입니다. 처녀가 문뜰을 지켜보면서 현재의식을 깨어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불교에서 정념이라 합니다. 한문으로 정념(正念)이고 번역하면 '알아차림'입니다. '알아차림' 하는 수행입니다. '알아차림'은 매순간 변화를 안다는 것입니다. 매순간 알아차릴 때 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대부분 화가 치밀면 자기가 화난 줄 모르고 화를 냅니다. 그런데 '알아차림' 수행을 하기 시작하면 화를 낼 때 내고, 화내는 줄을 알고 화를 냅니다.

수행이 더 들어가면 화가 나는 것을 알아차리면 화가 올라오다가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조금 더 공부가 잘 되면 화를 내고 있구나 알아차리는 순간 화가 올라오다가 내려옵니다. 수행의 고수는 아

에 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현재에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도 그것에 대하여 생각해야 하나니 어느 것도 단단하지 않다고 생각하라. 슬기로운 사람은 이렇게 아느니라. 현재 있는 모든 것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상태에서 무엇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를 안다는 것은 찾던 대로 객상 다르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론에서 어떤 모양이 생긴다는 것은 인과 연이 화합해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매순간 변화를 보라

매 순간 찰나찰나 변화를 볼 때 비로소 무엇을 안다 하는 법이 있습니다. 이런 법도 그것이 무엇인지 대상이 무엇인지 모르고 아는 것을 망념이라 합니다. 매순간 변한다고 알면 그것을 정념이라고 합니다. 알 속에는 미세한 판단이 들어갑니다. 이것이 불교 수행의 특징입니다. 지구상에 어떤 수행법도 불교이외에는 알아차림이란 수행이 없습니다.

만일 성인의 행을 행하는 이라면 누가 죽음에 대해 근심하리 나는 결코 그것을 만나지 않으리니 온 고승·재앙은 여기서 끝나리라.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면 삶과 죽음을 다 벗어납니다. 남전이라는 스님이 계시는데 하루는 날이 저물어서 마을 어귀를 가는데 마을사람들이 마중을 나왔습니다.

"스님 어서 오십시오."
"제가 오는 것을 어떻게 아셨습니까?"
"꿈에 신인이 나타나서 큰스님이 오시니 잘 모시라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부가 될 땐 스님 같으면 내가 잘나서 신인까지 나를 공경하는구나 했겠지만 남전 스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잘 것 없는 신에게까지 나의 행적이 들리다니 내가 아직 공부가 많았구나" 했습니다. 마음의 본질이 적멸이거든요. 적멸이 열반입니다.

이와 같이 꾸준히 힘써 행하여 밤낮으로 쉬지 않고 게으르지 말지니 그러므로 이 바에야 뒷따라게를 언제나 마땅히 살펴야 하느니라. 이 계승을 늘 가지고 외우세요. 망상피

우지 말고 계속 계승을 읽고 외우면 여러 분을 몸과 마음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의식의 과거나 미래로 갔던 의식이 현재의 식으로 깨어나집니다. 깨어나면서 현재 의식 속에서 자성정정심이 발현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도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몸이 깨어난다는 것은 오관이 청정해지고 얼굴이 맑고 깨끗하고, 코 입 눈귀가 다 밝아지고 좋아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질의응답

문 : 일상 생활 속에서 자주 다들입니다. 지혜롭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 : 상대가 이야기 할 때 잘 들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질 급하게 상대가 이야기 하는데 중간에서 끊고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실례입니다.

화가 날 때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스님에게 어느 분이 찾아와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연애시절엔 좋았는데 나이 들어 아이들이 생기면서 남편만 쳐다보면 화가 치밀어 오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보고 화가 나면 '나루 관세음보살' 하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불자가 아니었습니다.

"스님 그렇게 한다고 해결이 됩니까?"
"그래도 한번 해보시오."

하루는 남편에게 화가 나는데 자기도 모르게 '아이쿠 관세음보살' 했더니. 그런데 화가 올라오다가 속 내려가더라고요. 간단한 방법이지만 여기에 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모든 것은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조건에 의해서 사라집니다. 화날 조건에 의해서 화가 나는 것이고 화날 조건이 사라지면 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뭐가 잘못 되어가고 있다면 조건을 바꿔야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화날 수 있는 조건에다가 '아이쿠 관세음보살' 조건을 보태니까 화날 조건의 상황이 달라져 버린 것입니다.

모든 것은 상호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호 관계성은 조건에 의해서 이뤄졌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 잘 안 풀리면 대화해서 그때 순간순간 조건을 바꾸세요. 그러면 해결이 될 것입니다. 부부싸움뿐 아니라 사업문제, 공부 등 모든 것에 이 지혜는 다 적용됩니다.

정리 · 사진=이준영 기자

대한불교원효종 종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대한불교원효종은 1963년 이법흥 대종사께서 해동 울맥을 전수하시고 창종한 한국불교 정통 종단입니다. 종정 중심제로 발전을 거듭하여 오늘의 종단을 유지하였으나, 일부 몇사람들의 해종 행위로 정통종단으로서 위상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 사회법 판결로 해종 행위자들의 행보가 엄연한 위법임을 알려드리며, 전 종도들의 단합으로 종단의 위상을 재 정립하고 법흥 대종사의 유지를 받들어 수행정진 할것을 당부드립니다.

■ 서울 종로 공평동 소재 승무진의 추종자의 위법 사항

1. 종전 생활을 위해 종정 중심제(중원3장13조 "종정권한")를 승무원장 중심제로 정당한 절차(종정스님의 공표)를 거치지 않고 날조 공표한 사항
2. 승무진은 2000년 10월 23일 본종단 상법위원회에서 "체탈도침"이 의결되어 동년 10월 26일 종정스님의 계가로 "체탈도침"이 확정 공표되어 본종단의 승려 자격을 상실 한데도 불구하고, 본 종단의 명칭으로 불법을 자행한 사항.
3. 승무진은 본종의 승려와 승무원장등 아무런 자격과 권한도 없이 불법으로 개정된 종원과 종법을 임의로 공표하고, 소외 김상조를 종정에 취임시켜, 종도들을 혼란케하고, 종단을 분열 시킨 사항.
4. 승무진은 2004년 4월 21일 본종의 정식명칭인 "대한불교원효종"을 불법으로 차용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한 사항
5. 2005년 6월10일 1963년 창종이후 사용한 공식 명칭 "대한불교원효종"을 상업적 목적성을 가진상표 등록하고,본종의 정통불교 이미지를 손상한 사항.

■ 서울 종로 공평동 소재 승무진의 추종자의 위법 사항에 대한 법원의 판결

1. 2003년 10월 20일 부산고등법원 판결(99가합16730)과 2004년 대법원 원심확정 판결(2003다64381)로 본 종단은 종정중심제임을 확정 판결하였으나, 승무원장 중심제로 불법단체를 구성하여 종도들을 혼란케 함.
2. 2005년 1월28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2004가합1205)에 의해 "종단의 종정과 종회의장 이거나 승무원장 인듯한 지위에서 종단의 명칭을 사용 하는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에도 불구하고 본종의 명칭으로 재단 법인 등록과 상표권 등록을 자행 함.
3. 2005년 9월30일 서울고등법원판결(2004나83268)에 의해 다시한번 승무진이 본종의 법통을 이은바 없다는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승무진의 종단은 불법임의 단체임이 확인 되었으나, 종단협의회 등에서 본종의 대표자로 행세해 전 불교도들을 기망케 함.

승무진의 불법단체는 다음사항을 즉시 실행하라

1. 서울 종로 공평동 소재 불법단체를 즉각 해체하라.
2. 그간의 불법 사항에 대해 전종도들에게 즉각 참회하라.
3. 불법으로 사용되어온 본종단의 명칭에 대한 상표권 등록등 일체의 상업적 행위에 대해 즉각 지진 철회하라.

승무진측 불법단체에 현혹되신 종도분들께 알려 드립니다

1. 서울 공평동 소재 불법단체에 현혹되어 승려및 사찰 등록을 하신 종도분들은 조속히 본종 승무원으로 재등록 바랍니다 (문의전화: 051-466-0977, 467-3316)
2. 2005년 정기 연말 소득 공제용 납입금 증명서 발행시 본종에 등록되지 않은 사찰에서 발행된 공제증명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됨을 알려드립니다.

대한불교원효종 종정 최덕산 · 승무원장 김고산 합장

● 총무원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 4동 843번지 원효종 총본산 금수사내 전화 051)466-0977, 051)467-3316